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오는 30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한 공연 ‘형제들’을 무대에 올린다. 지난 4월 펼쳐진 ‘2025 교향악축제 프리뷰’의 모습. <광주시립교향악단 제공>

문화로 만나는 ‘오월’

<1>시향 연주회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섰던 1980년 5월의 광주. 서로를 감싸며 어깨를 맞춘 시민들의 숭고한 연대는 45년이 지난 지금도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다. 그 ‘시민의 형제애’가 클래식 선율 위에 새겨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시향)이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395회 정기연주회 ‘형제들’을 무대에 올린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공연의 주제는 ‘형제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연대와 희생을 상징한다.

시향은 이번 공연에서 음악이라는 언어를 통해 5·18의 정신, 곧 형제애와 저항의 서사를 풀어낸다. 공연은 단 두 곡이지만 강렬한 울림을 지닌 아르보 파르트와 안톤 브루크너의 작품은 80분간 간결하고도 밀도 있게 울려 퍼질 예정이다.

무대의 서막을 여는 곡은 에스토니아 출신 작곡가 아르보 파르트의 ‘형제들(Fratres)’. 제목이 암시하듯 이 작품은 인간의 유대, 혹은 공동체의 연결성을 주제로 한다. 파르트는 분열된 세상 속에서의 연대를 미나 말하며면서도 경건한 음색으로 그려냈다.

특히 작곡가 특유의 ‘틴티나불리(tinnabuli)’ 기법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종소리(tinnabulum)처럼 반복되는 맑고 단순한 음이 관객들에게 명상에 빠

5·18 45주년 기념 음악회…30일 광주예술의전당

아르보 파르트 ‘형제들’ 등 시민 회생·공동체 담아



이병욱 예술감독

저드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정제된 패턴 속에서 고음과 저음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선율은 고요하지만 날카로운 긴장감을 품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이 사운드는 단순한 음의 반복을 넘어, 내면의 울림이자 영적 연대의 감동으로 다가온다.

시향은이곡을 통해 1980년 5월,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었던 광주 시민들의 공동체적 결속과 평화의 메시지를 오늘의 관객과 함께 다시 새기려 한다. 이는 5·18 희생자들을 위한 음악적 진혼이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기억을 다시 불러내는 조용한 울림이다.

이어지는 곡은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9번 D단조. 브

루크너 최후의 교향곡이자 미완성 유작이기도 한 이 곡은 인간의 고통과 구원, 삶과 죽음을 장대한 오케스트라 언어로 풀어낸다.

당초 4악장 구조로 구상됐으나, 브루크너는 마지막 악장을 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미완의 형식은 오히려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구원에 대한 갈망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곡은 웅장함과 장엄함 속에 고요한 신비로움이 교차하고 격정과 불안, 충돌과 화해가 정지하게 얹혀 있다. 차분히 시작해 점차 고조되는 선율은 내면의 울분과 갈망을 토해내듯 격정적으로 변제가고, 결국 정적 속에서 음악은 멈춘다.

마치 역사적 상처를 마주하면서도 그 너머의 치유를 모색하는 광주의 오늘과도 닮아 있다. 끝내 완성되지 않은 이 교향곡은 마침표 대신 긴 여운을 남기며, 살아남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기억의 책임’을 조용히 일깨운다.

지휘를 맡은 이병욱 시향 예술감독은 “이번 공연을 통해 5·18이 남긴 숭고한 연대의 정신과 희생의 의미를 음악으로 되새기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의미와 예술적 깊이가 조화를 이루는 무대로 관객들과 꾸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전했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티켓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

일상 속 당신을 찾아가는 ‘문화의 물결’

광주문화재단 5월 프로그램 공개 시립국악관현악단·뮤지컬·포크송

“나는 나뭇배, 당신은 행인.” 만해 한용운의 시 한 구절처럼, 문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이 ‘2025년 찾아가는 문화공연-당신 곁에’ 5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5월 공연은 한용운 시인의 시구를 인용한 ‘나는 나뭇배, 당신은 행인’을 주제로,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를 만날 수 있도록 다채롭게 진행된다.

10일에는 서구·북구에서 대중음악과 국악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진다. 북구 양산호수공원에서는 오후 3시부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전통 국악의 정수를 담은 무대를 선보인다. 대금과 장구 연주를 비롯해 궁중무용 ‘춘앵전’, 국악가요, 남도민요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어 오후 4시 30분에는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동고동락 콘서트-당신곁에’가 열린다. 타악 그룹 ‘비트걸스’의 역동적인 연주를 비롯해 민요 ‘벚노래’, 통기타 연주, 팝 메들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관객들과 호흡할 예정이다.



광주문화재단이 ‘찾아가는 문화공연’ 5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오는 17일 남구 진월동 푸른길 공원에서 펼쳐질 광주포크음악협회의 ‘Folk 타임슬립’ 콘서트. <광주문화재단 제공>

17일에는 남구·광산구에서 공연이 이어진다. 진월동 푸른길공원에서는 하성관, 기현수 등 원조 포크가수들이 출연해 ‘봄봄봄’, ‘변해가네’ 등 추억의 명곡을 들려주는 ‘Folk 타임슬립’ 콘서트가 펼쳐진다. 같은 날 광산구 쌍암공원에서는 역사적 인물의 이야기를 뮤

지컬로 풀어낸 유피씨어터의 ‘시간의 숲’이 시민들을 만난다.

노회용 재단 대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채로운 공연과 문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광주·전남 사찰 봉축식 봉행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 5일 오전 광주·전남 사찰에서는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의식이 펼쳐졌다.

순천 송광사를 비롯해 장성 백양사, 구례 화엄사, 해남 대흥사 등 대한불교조계종 호남 지역 교구 본사를 비롯해 각 종단 사찰들이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또한 광주 증심사, 무각사, 원각사를 비롯해 광주지역 주요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며 석가모니

가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겼다.

법요식에 참석한 불자와 시민들은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을 받들고, 자비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한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했다.

증현 증심사 주지스님은 “나로부터 참회하여 번뇌의 불길은 바로 잡자”라는 주제의 봉축사에서 “우리들이 눈 앞의 욕망에 정신이 멀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이, 세상은 말법전지로 변해버렸다”며 “우리들의 욕

망이, 우리들의 증오가, 그리고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온 세상을 불태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을사년 부처님 오신 날이다. 우리 모두가 번뇌의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초파일은 부처님의 생신이자 모든 중생들의 진정한 생일이기도 하다”며 “나로부터 참회하여 번뇌의 불길은 바로 잡아, 모든 중생들이 행복한 불국정토를 만들자”라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5월호

예향



광주 방문의 해, 무등산에 오르다

‘예향 초대석’ 여성국극 1세대 조영숙 명인

광주의 자랑 무등산의 5월은 초록의 푸른 바다처럼 눈부시다. 이제 막 여름옷을 입기 시작한 무등산에 탐방객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5월호는 ‘2025년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특집 ‘무등산에 오르다’를 준비했다. 광주의 진산(鎭山)인 무등산은 21번째 국립공원이자 ‘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묵는 습지인 ‘평두메 습지’는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랍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무등산 전’을 연 임재욱 사진작가, 무등산 야생화를 스마트폰에 담은 김순환 씨, 무등산 정신을 잇는 (사)무등산무등길협회의 김인주 상임의장의 무등산 이야기를 듣는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조영숙 발탈 명인을 만나본다.

“나에게는 영 놓지 못하는 예술세계가 있다. 여성국극,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그의 물라에 안타까운 마음은 꿈속에서도 못 잊는다.” 광주 태생인 조영숙(92) 명인은 여성국극 1세대 배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발탈 보유자이다. 드라마 ‘정년’에 이어 다류 ‘여성국극 끊어질듯 이어지고 사라질듯 영원하다’(감독 유수연)가 개봉되며 여성국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문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다. 제45회 장애인 날을 맞아 가온 솔로이스츠가 기획한 제5회 정기연주회 ‘기쁨의 노래’ 무대였다. HS효성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후원한 이번 음악회는 장애·비장애 통

합 실내악 연주단체인 ‘가온 솔로이스츠’의 무대로 꾸며져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화제의 문화 현장 속으로 들어가본다.

“우리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코너가 찾아간 곳은 광주 광산구 동곡뮤지엄이다. 동곡뮤지엄은 어느 동네 미술관과는 스케일이 다르다. 고조선시대 청동검에서부터 조선시대 도자기, 미술품 등 희귀한 유물들이 많아 공립박물관이 부럽지 않은 컬렉션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광산구 최초의 사립미술관으로 개관해 도심과 외곽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는 동곡뮤지엄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는 화사한 정원의 세계로 안내한다. 따뜻한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 겨울을 이겨내고 돌아온 연둣빛 새순… 정원이 보여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정원사가 들려주는 꽃과 나무 이야기에는 사랑이 넘쳐난다. 해남이 자랑하는 산이정원과 비원, 장흥 하늘빛 수목정원, 담양 죽화정까지, 봄빛으로 물든 남도 정원을 다녔다.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 습지, 오천 그린광장 등을 통해 국내 대표 생태도시에서 국제적인 생태도시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순천으로 떠나는 ‘맛과 맛 함께, 남도유람’도 볼거리다. 순천 보리를 활용해 만든 지역 맥주 브랜드 ‘순천 브루어리’와 ‘순천 송광’의 전통장 담그는 풍경도 정겹다.

이외에 ‘화제의 전시’ 2025 하정웅 컬렉션 기획전-‘단색화: 무한과 유한’ 전, ‘해외문화기행’ 예술아지트 라발의 아이콘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현장도 다녔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현실과 이상 사이 ‘몽환’

광주신세계갤러리, 13일까지 김용안 초대전

지난 1996년부터 지속돼 온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지역 작가를 발굴 지원해 미술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시행된 공모제다. 수상 작가에게는 전시 기회가 주어져 창작활동의 동력이 된다.

김용안 작가는 지난 2018년 제19회 신세계미술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김용안 작가 전시를 오는 13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 주제는 ‘간극의 공간Ⅱ’. 작가는 안개에 뒤덮인 숲의 이미지를 매개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표현해왔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길들여진 정원’은 얼핏 보기에 환상적이면서도 신비롭다. 마치 허공에 뜬 인공의 푸른 숲을 구현한 듯 하다. 주위의 자욱한 안개와 구름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몽환적으로 보이게 하며 더러는 만들어진 이 미지로 보이게 한다. 분명한 것은 정교한 보도블록 위에 펼쳐진 자연은 결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마나면 대상으로 인식하게



‘감춰진 지옥’

한다.

‘감춰진 지옥’은 은혜의 바다에 펼쳐진 숲속의 정경을 초점화한 작품이다. 구름과 안개가 숲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안개 위에 숲이 걸쳐 있는 것인 지 가늠하기 어렵다. 일견 평화로워 보이지만, 평화 이면에 도달할 수 없는 ‘불편한 이상’을 작가의 특유의 몽환적 분위기로 구현했다.

김수영 큐레이터는 “이번 김용안 초대전은 공간과 공간, 이상과 현실, 오늘과 내일, 자연과 인위 등 그 간극 사이에 드러워진 의미와 분위기를 특유의 몽환적 느낌과 구도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

다”며 “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삶 가운데 드러워진 ‘간극’들을 사유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작가는 조선대 미대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경계를 넘다’ 등과 K-아트페어대전 등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